

아프리카 사람들의 AI 추론, 베이징 서버에 실시간 입력된다

입력 2025-10-02 04:30

편집자주

AI 기술력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AI시대 한국의 안보 전략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딥시크, 중국 불리한 질문 외면
해외 중요 정보, 본토 경유 설계
일대일로, 친중 내러티브 가득



그래픽=송정근 기자

#.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모델에는 중국 과학기술부의 윤리 심사 기준과 중국식 검열 및 가드레일(guardrails)이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대만, 홍콩,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해선 85% 이상의 질문을 거부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관련 공적 담론이 왜곡될 위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아프리카 사람들의 AI 추론이나 머신러닝 과정 및 서비스 과정의 트래픽과 데이터는 중국 본토의 CN-PoP(China Point of Presence)로 보내진다. 해당국의 데이터 주권이 약화되고, 사용자의 키 입력 패턴이나 위치 데이터 등 메타데이터가 중국 기업에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로 퍼지는 '중국 AI 호랑이'

기원전부터 15세기 중반까지 비단과 도자기를 실은 낙타가 유라시아 대륙을 넘나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중국이 밀어붙이는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의 주역은 AI다. 미국의 대중 견제가 거세지자 광케이블, 데이터센터, 모바일 결제 그리고 AI 모델까지를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로 쏟아내며 또 다른 형태의 영향권을 구축 중이다. 특히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은 아프리카 현지 대학과 연구소가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21세기형 낙타'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AI 산업을 1,000억 달러(약 141조 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딥시크, 즈푸AI(Zhipu AI), 문샷AI(Moonshot AI), 미니맥스, 바이촨 AI(Baichuan AI) 등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들을 집중 지원하는 이유다.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 AI 모델을 빠르게 수용하고 활용하면서, 해당 지역의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AI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HSBC, 사우디 아람코 같은 글로벌 기업이 딥시크를 내부 시스템에 설치했고, 아마존웹서비스(AWS)도 고객에게 딥시크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25년 5월 미 상원 청문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회장이 말했듯, "AI 경쟁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 세계에서 어떤 기술이 더 널리 채택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세상에 공짜 AI는 없다

중국의 대표 AI 모델 딥시크는 GPT-4급 성능을 1% 비용으로 제공하며, 저사양 GPU 환경에서도 튜닝이 가능하다. 덕분에 아프리카의 29개 국영 대학과 ICT 허브가 이미 도입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중국발 개방형 AI 모델 보급은 아프리카의 AI 생태계 전반에서 대중 의존도와 종속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게다가 아프리카 등에는 AI 반도체 측면에서 저가형 하드웨어(엔비디아의 H800, 화웨이의 Ascend 910B 등)와 DSR(Data Subject Requests) 맞춤형 패키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상시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중국 본사 통제를 받게 된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데이터 주권 지키기에 노력은 한다. 자국 데이터 보호 및 AI 거버넌스 강화, 로컬 AI 생태계와 기술 내재화, 디지털 주권 및 윤리 규범 강조, 그리고 규제 강화와 기술 다변화 노력 등을 통해 중국의 디지털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발 무료 AI 유혹은 쉽게 뿌리칠 수 없다.

중국발 AI 확산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다. 인프라와 표준, 알고리즘을 묶어 수출하며, 나아가 '친중 내러티브를 주입하는 인지전'으로 작동한다.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는 경제 안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각국의 여론과 가치관까지 바꾸려는 '21세기형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이종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